

2026. 상반기 이슈+생각

설문조사와 인포그래픽을 통해 교육 이슈를 소개합니다.

경남지역 이주배경학생 및 소속학교 지원방안 탐색

구경호(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 연구위원)

최근 10년 동안 경남지역 이주배경학생¹⁾은 2.3배로 증가하였으며, 전체 학생 대비 비율은 4.29%에 이르렀다. 이주배경학생의 증가는 교실 내 언어적·문화적 다양성을 확장시키는 긍정적 영향과 함께, 기존의 보편적 교육 과정으로는 수용하기 어려운 학습 격차와 소통의 장벽이라는 과제를 동시에 제기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경남 지역 이주배경학생 및 소속학교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Part 1 | 경남지역 이주배경학생 현황²⁾



국내출생 자녀

한국인과 결혼이민자
사이에서 태어나 국내 성장



중도입국 자녀

외국에서 성장하다
부모의 재혼 등으로 입국



외국인 가정 자녀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
(고려인, 난민 등 포함)

- 이주배경학생은 출생 배경에 따라 국제결혼가정 자녀(국내출생 자녀, 중도입국 자녀) 및 외국인가정 자녀로 구분.
- 경남지역 이주배경학생은 14,833명(2025년 4월 기준)이며, 국내출생 자녀 78.3%, 중도입국 자녀 4.6%, 외국인가정 자녀 17.1%로 구성됨.

1) 교육정책의 대상으로서 기존에 혼용되던 '다문화학생'이라는 용어를 '이주배경학생'으로 통일하여 사용함(출처: 교육부(2023). 이주배경 학생 인재양성 지원방안)

2) 출처: 경상남도교육청(2025). 2025년 경남다문화교육 시행 계획 및 KESS 시도별 교육통계서비스(kess.kedi.re.kr) 자료 (인출: 2026.03.25).

■ 이주배경학생 증가 추이

급격한 양적 성장과 학령기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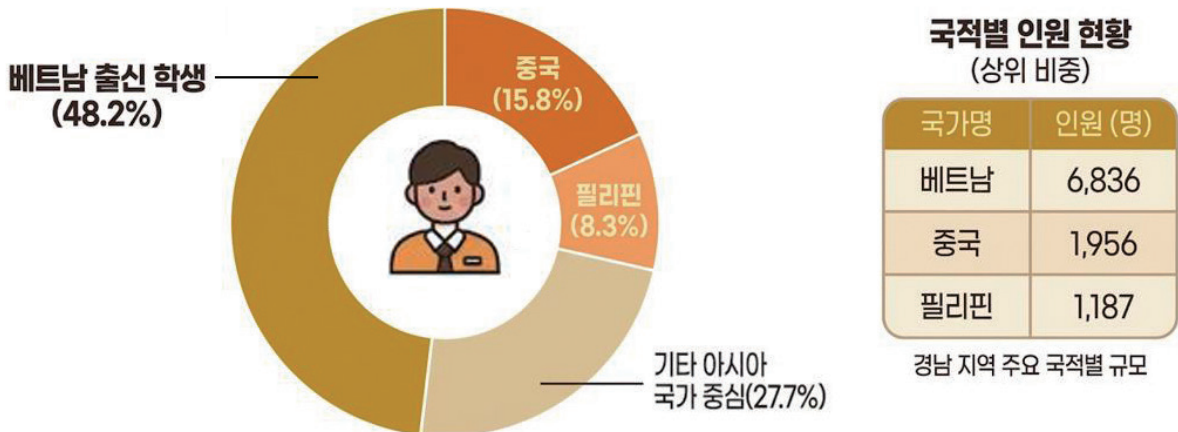
· 경남지역 이주배경학생 수는 2015년 6,390명(1.54%)에서 2025년 14,833명(4.29%)으로 10년 만에 2.3배 증가함.

중·고등학생 비중의 비약적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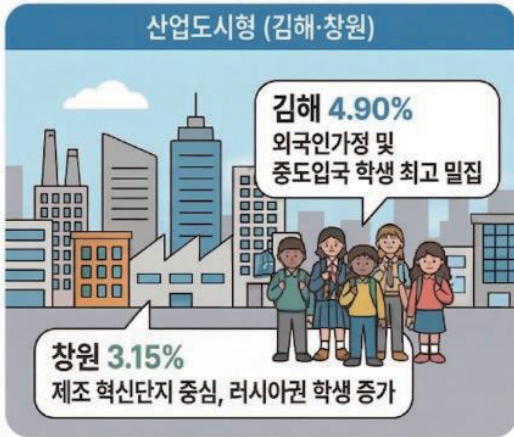
· 최근 4년간의 학교급별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초등은 2025년까지 감소 추세를 보이나, 중·고등학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남.

■ 이주배경학생의 출신 국가 현황



· 경남지역 이주배경학생의 주요 출신 국가는 베트남(48.2%), 중국(15.8%), 필리핀, 캄보디아, 러시아/중앙아시아 순으로 나타남.

■ 이주배경학생 분포 특성: 산업도시형 vs 농산어촌형



<산업도시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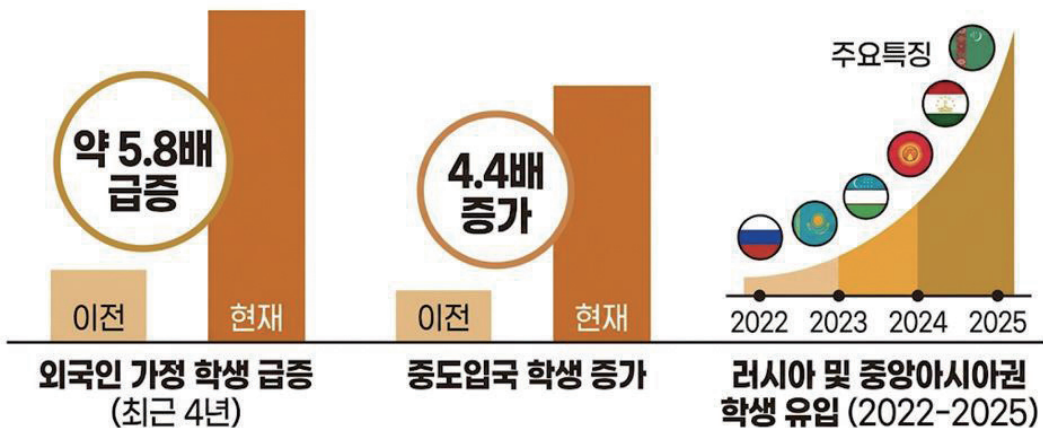
- 중도입국 가정과 외국인 가정의 비율이 높음.
- 창원, 김해, 양산, 거제, 진주 지역에 전체 이주 배경학생의 67% 이상 거주함.
- 일부 학교는 이주배경학생의 비율이 50%를 넘는 이주배경학생 중심의 학교 구조로 전환된 상태임.



<농산어촌형>

- 국내 출생 다문화가정의 비율이 높음.
- 창녕, 하동, 의령, 산청, 함천의 경우 지역 학생 수 대비 이주배경학생의 비율이 1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남.
- 창녕의 경우 비율이 14.97%로 18개 시군 중 가장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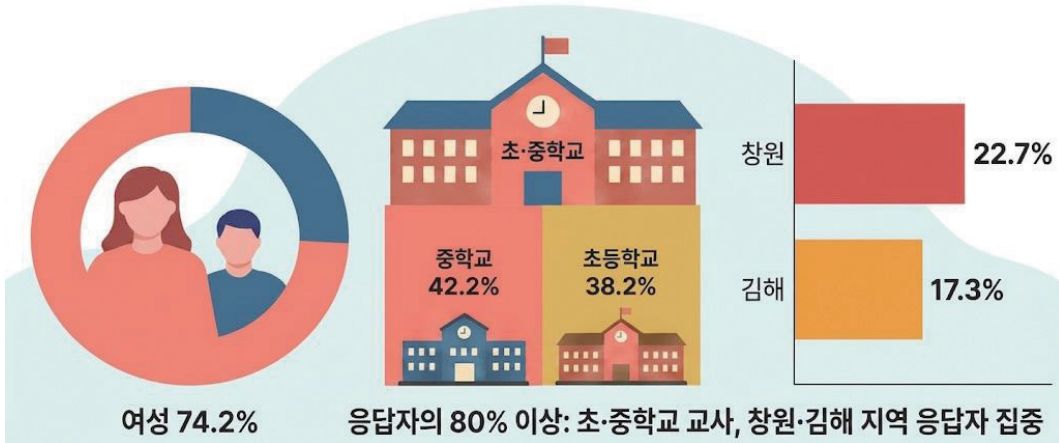
■ 최근 변화 및 주요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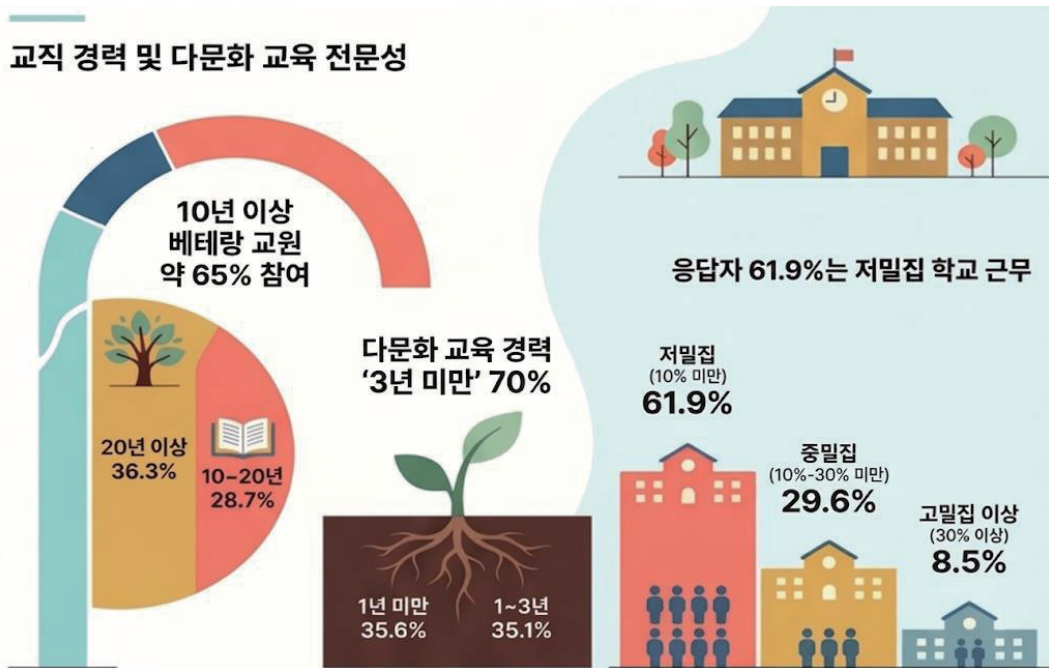
- 최근 4년간(2022년~2025년) 외국인 가정 학생은 약 5.8배, 중도입국 학생은 4.4배 증가함.
- 한국어(교육) 지원이 필요한 학생의 증가로 초기 학교 적응 및 수업 이해 문제가 심화됨.

Part 2 | 경남지역 이주배경학생 및 소속학교 지원방안 조사³⁾

응답자 구성 및 교육 현장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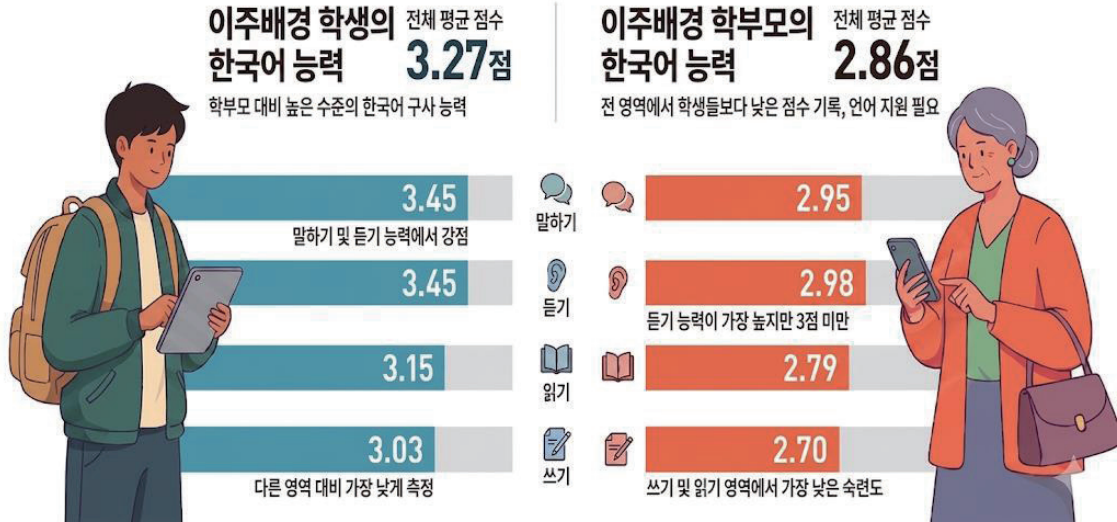
교직 경력 및 다문화 교육 전문성



- 응답자의 65%가 10년 이상의 교직 경력을 보유한 반면 다문화교육 경력은 3년 미만인 경우가 70%를 넘어서는 대조적인 특징을 보임. 다문화교육 경력과 관련하여 16.1%는 5년 이상으로 응답함.
- 이주배경학생의 밀집도(이주배경학생 수/재학생 수)에 따라 저밀집(10% 미만), 중밀집(10~30% 미만), 고밀집(30~50% 미만), 초고밀집(50% 이상) 학교로 구분하여 조사함.
- 응답자 중 6.1%는 고밀집 학교에, 2.4%는 초고밀집 학교에 재직 중인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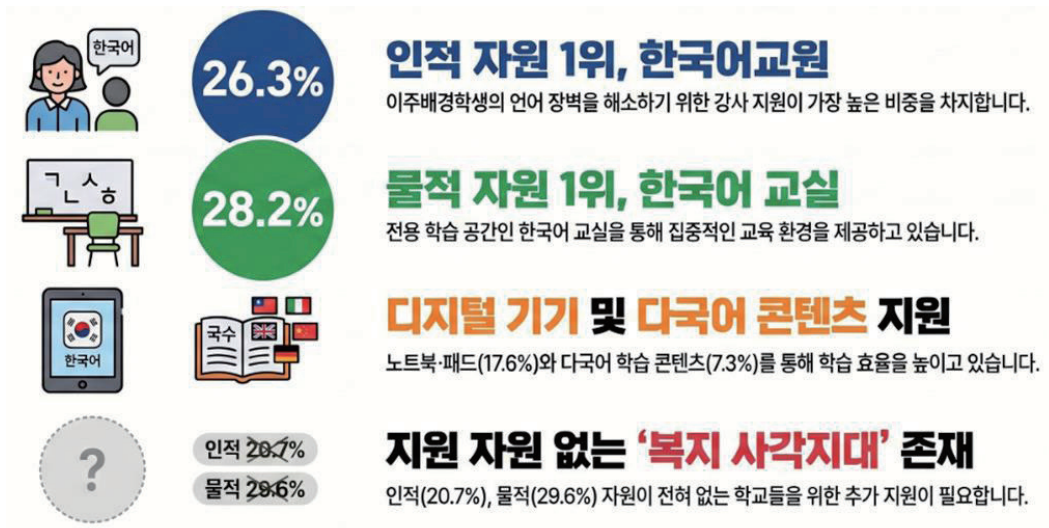
3) 조사대상: 경남지역 이주배경학생 소속학교에 재직 중인 초·중·고 교사(2026년 4월 기준), 조사 기간: 2026.4.6~4.10., 조사 방법: 온라인 설문조사, 응답자: 578명(불성실 응답 제외).

■ 이주배경학생 및 학부모의 한국어 능력



- 이주배경학생과 학부모 모두 구어(말하기, 듣기)에 비해 문어(읽기, 쓰기) 능력 점수가 낮게 나타남(5점 기준). 이는 일상적인 대화는 어느 정도 가능하더라도, 학습이나 서류 작업 등에 필수적인 문자 이해 및 표현 능력이 부족함을 시사함.
- 이주배경학생 학부모의 한국어 능력 점수는 모든 영역에서 학생의 평균 점수보다 낮음. 학교 현장에서의 가정통신문 번역이나 통역 지원 등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함을 시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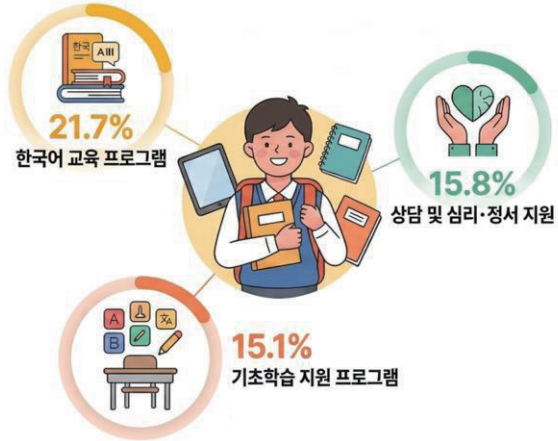
■ 이주배경학생에게 제공하고 있는 인적 자원 및 물적 자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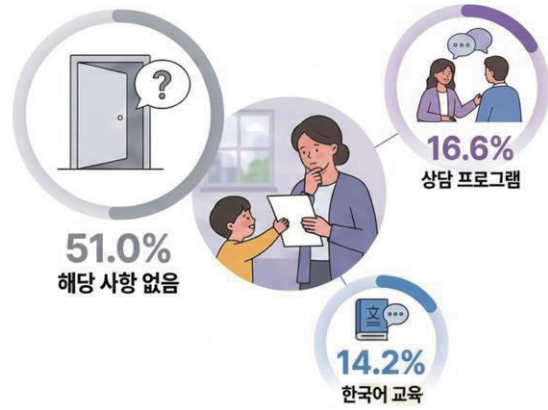
- 한국어 교원(강사)과 한국어 교실 등 일부 자원은 투입되고 있으나, 통역 전담 코디네이터 및 실질적 소통을 돕는 통·번역 기기 지원과 같은 세밀한 맞춤형 자원은 부족한 실정임.
- 인적자원과 물적자원에 대해 '지원 없음'으로 응답한 교사는 각각 20.7%와 29.6%로 나타남.

이주배경학생을 위한 학교 적응 프로그램 및 학부모 지원 프로그램

이주배경 학생을 위한 학교 적응 프로그램



이주배경 학부모를 위한 교육적 지원



- 학생의 경우 학교 적응 프로그램이 제공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14.3% 수준이었으나, 학부모를 위한 교육적 지원에 대해서는 무려 51.0%가 '없음'으로 응답함.
- 학생을 대상으로는 한국어 및 기초 학습 위주의 지원이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학부모를 위한 교육적 지원은 전반적으로 매우 미흡하며 특화된 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부족한 실정으로 해석할 수 있음.

이주배경학생 및 학부모 지원에 대한 전반적 인식



- 이주배경학생 및 학부모 대상 '지원의 적절성'과 관련한 총 4문항에 대해, 소속학교 교사는 평균 3.24점(5점 기준)을 주었으며, 이 중 '학교 적응 프로그램의 적절성'이 3.31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설문 항목 중 '이주배경학부모에 대한 교육적 지원 체계'가 가장 낮게 나타남. 이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 체계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점을 시사함.

Part 3 | 이주배경학생 소속학교의 교육력 현황 진단

교사 전문성 및 협력 영역 (평균 3.32)

 학교장의 다문화교육 비전 및 지원 3.41	 실무 중심의 연수 기회 충분 3.33
 다문화 관련 업무의 민주적 분담 3.32	 전문적학습공동체를 통한 지도 사례 공유 3.22

수업 및 학습 영역 (평균 3.29)

 문화적 배경을 수업의 교육 자산으로 활용 3.40	 한국어 숙달도에 따른 개별화 수업 및 속도 조절 3.29
 에듀테크 자원(AI, 번역기 등) 적극 활용 3.28	 수업 지연/학습권 침해 예방 전략 보유 3.19

정서 및 관계 영역 (평균 3.28)

 편견 없이 어울리는 공존의 학교 문화 형성 3.62	 정체성에 긍지를 느끼는 정서 지원체계 3.20
 내국인 학생/학부모 소외감 및 역차별 관리 3.16	 갈등 중재를 위한 전문적 사회정서학습 운영 3.14

학교 운영 및 지역사회 연계 영역 (평균 3.24)

 지역사회 특성을 학교 교육과정 자료로 활용 3.26	 지역사회 안전망(보건소, 복지시설 등) 연계 3.25
 지자체 가족센터 등 유관 기관과 협력 거버넌스 구축 3.24	 이주배경 학부모의 의사결정 참여 소통 채널 존재 3.20

학습 지원체계 영역 (평균 3.13)

 한국어 학급(KSL) 등 한국어 향상 지원 3.25	 한국어 예비과정/방과 후 프로그램의 학업 기여 3.24
 기초학력 지원을 위한 전담 인력(멘토 등) 활용 3.10	 가정통신문 다국어 번역을 통한 정보 소외 방지 2.94

이주배경학생 소속학교의 교육력 진단

- 이주배경학생 소속학교의 교육력을 5개의 영역으로 나누어 진단(5점 기준) -

▶ 수업 및 학습 영역(전체 평균 3.29)

· 교사들은 이주배경학생의 이주 경험이나 문화적 배경을 유효한 교육 자산으로 활용(3.40)하고 개별화 수업(3.29)을 진행하려 노력하고 있으나, 한국어 미숙으로 인한 수업 지연 방지 전략이나 보조인력 활용(3.19) 측면에서는 다소 한계를 보이고 있음.

▶ 학습 지원체계 영역(전체 평균 3.13)

· 한국어 학급 지원(3.25)이나 예비과정(3.24)은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으나, '가정통신문 등 주요 안내 사항을 다국어로 번역하여 정보 소외를 방지한다'는 문항은 2.94점을 기록함. 이는 모든 교육력 지표 중 유일하게 2점대이며 구조적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해석됨.

▶ 정서 및 관계 영역(전체 평균 3.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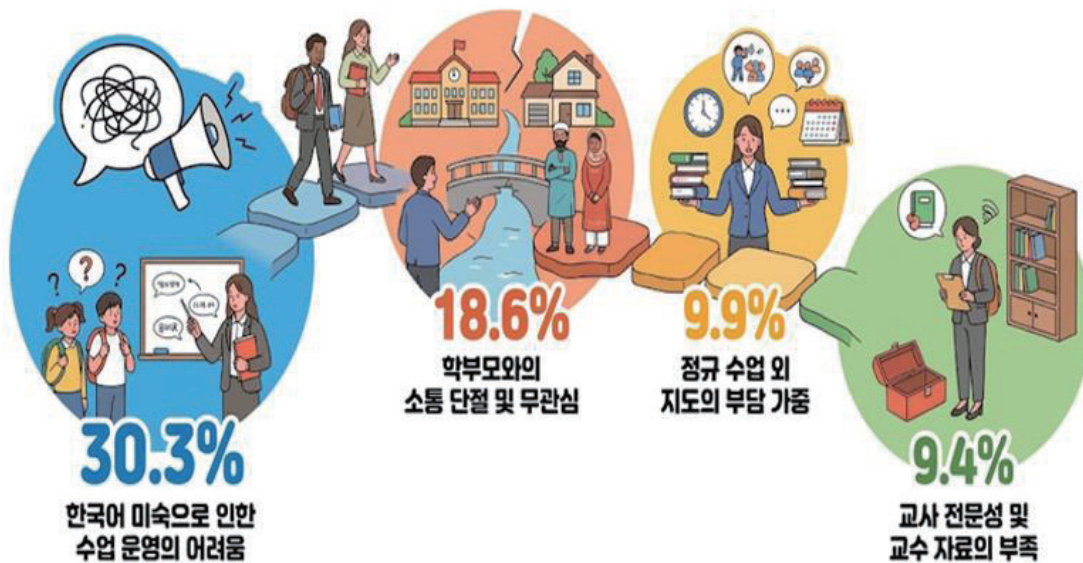
· 국적이나 문화 편견 없는 어울림 문화 형성은 3.62점으로 가장 높게 평가되었으나, 문화적 차이로 발생하는 갈등 중재 전문 프로그램(3.14)과 내국인 학생 및 학부모의 역할별 인식 관리(3.16) 부문은 낮게 평가됨.

▶ 교사 전문성 및 협력 영역(전체 평균 3.32) 및 학교 운영 연계(전체 평균 3.24)

· 학교장의 비전(3.41)과 연수 제공(3.33)은 양호하나, 학부모의 의사결정 참여 소통 채널 구축(3.20)은 미비한 것으로 평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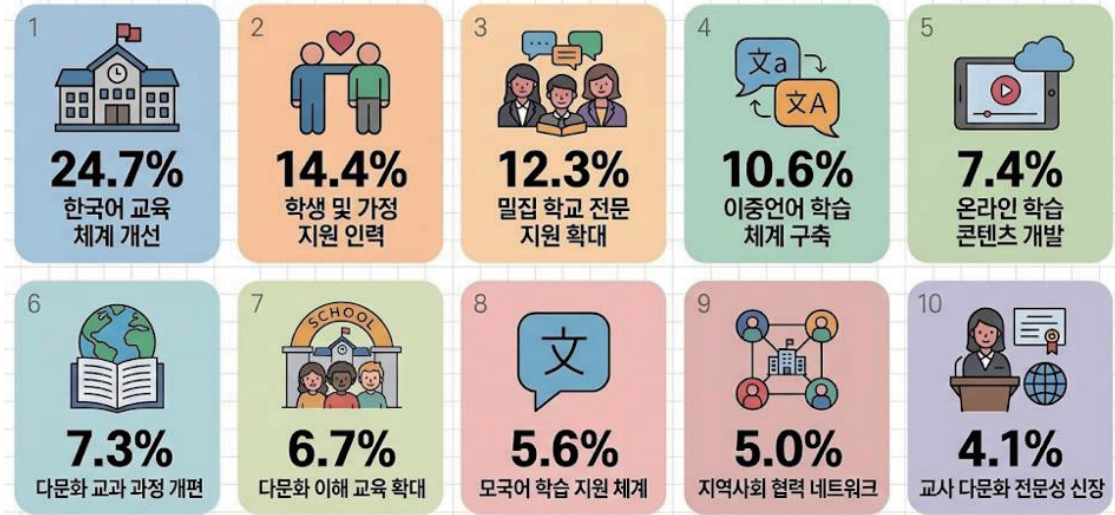
Part 4 | 이주배경학생 소속학교 지원 방안

■ 이주배경학생 지도의 어려운 점



· 교사들은 가장 큰 어려움으로 학생들의 한국어 능력 부족에 따른 수업 운영의 어려움, 학부모와의 소통 단절 및 교육에 대한 낮은 관심을 지적함.

■ 이주배경학생 소속학교를 위한 지원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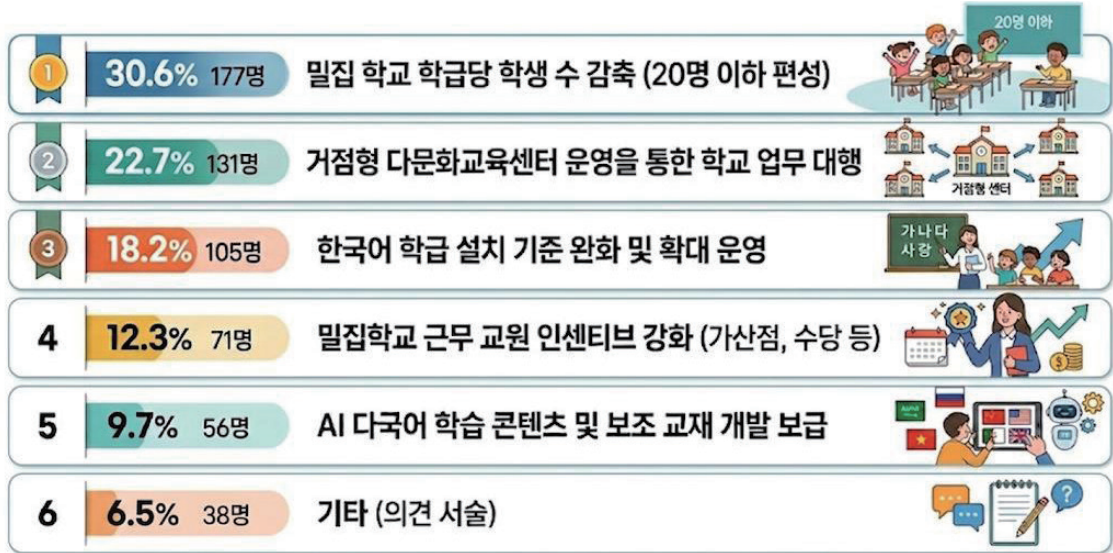
- 이주배경학생 소속학교를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로, '한국어 교육 체계 개선' 및 '이주배경학생과 밀집학교를 위한 전담 인력 배치'가 요구됨.
- 응답 결과, '교사의 다문화 전문성 신장' 정책은 우선순위에서 가장 낮게 나타남. 이는 교사 개인의 역량 강화보다 학교 시스템의 구조적 개선과 외부 전문 인력의 현장 투입을 통해 당면한 교육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됨.

■ 이주배경학생 소속학교를 위한 세부 지원 정책: 인적 지원 차원



- 세부 지원 정책에 대한 응답 중 필요한 인적 지원으로, 교사들의 행정적 부담을 덜어줄 다문화 전담 행정 인력의 배치를 희망하는 의견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음.
- 학교 현장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학생들의 적응을 돕기 위한 맞춤형 인력 보강이 중요함을 시사함.

■ 이주배경학생 소속학교를 위한 지원 정책



- 교육 여건 개선과 관련해서는 학급 내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제한하여 과밀화를 해소하자는 의견이 가장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남.
- 다문화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한 언어 지원을 넘어 행정 효율화와 교실 밀집도 완화라는 구조적 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해석됨.

Part 5 | 나가면서

1. 이주배경학생 및 소속학교 실태

▶ 한국어 능력 불균형

- 이주배경학생들은 기본적인 의사소통 능력은 어느 정도 갖추어 교우 관계 형성에는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보이나, 교과 수업을 이해하고 학업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학업적 언어 능력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 더 큰 문제는 학부모의 한국어 능력이 학생보다 낮아, 가정 내 학습 지도뿐 아니라 학교와의 공식적 소통에도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 인적·물적 인프라의 불균형 및 부재

- 학교 현장의 전문 인력은 한국어 교원(26.3%)에 치중되어 있으며, 통역사(1.9%)나 지원 전담 코디네이터(1.6%)와 같이 소통과 행정을 직접 담당할 인력은 부족한 실정이다.
- 특히, 응답 교사의 20.7%는 학교에 제공되는 인적 자원에 '없음'으로, 물적 자원 역시 교사의 29.6%가 '없음'으로 응답해 이주배경학생 저밀집 학교에는 여전히 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이주배경학생 및 학부모 지원에 대한 구조적 공백

- 이주배경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은 한국어 교육(21.7%)과 학력 보정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중언어교육(5.3%)이나 진로 지도(4.6%) 등 다양한 프로그램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학부모 대상 교육적 지원은 학생에 비해 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교사의 51%가 '없음'으로 응답). 이는 이주배경 학부모가 공교육 내에서 자녀 교육의 동반자로 성장할 제도적 발판이 약한 상태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2. 시사점

▶ 언어격차로 인한 교육력 저하

- 이주배경학생의 학업적 언어능력 부족은 단지 개인의 학력 저하로 끝나지 않는다. 교사들은 소수 학생의 언어 이해도를 고려하여 인위적으로 수업 진도를 늦추거나 기초 설명을 반복하게 되고, 이는 동일 학급 내 내국인 학생의 학습권 침해와 수업 결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학교 공동체 전반의 학습 저하와 내국인 학생의 입학 기피 현상을 유발하는 중대한 원인이 될 수 있다.

▶ 교원의 소진

- 이주배경학생의 출결 관리, 통·번역, 심리 상담, 기초학력 보정, 다문화 학부모 민원 응대 등은 현장 교사의 직·간접적인 업무로 연결되고 있다. 이는 결국 교사의 다문화 업무 기피 현상과 심리적 소진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체계적인 지원이 없다면 학교 현장의 동력은 상실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 학부모 무관심과 정보 소외

- 학교 교육력 진단 중 '다국어 번역을 통한 정보 소외 방지' 지표는 2.94점으로 최하위를 기록하였다. 이 데이터를 통해 이주배경학생의 학부모들이 학교와 자녀교육에 무관심하다고 인식하기 쉬우나, 실제로는 번역 시스템의 부재로 인해 교육 정보 접근에서 배제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 배타적 소집단화와 내국인 역차별 등 밀집학교의 딜레마

- 이주배경학생들이 같은 학교로 편중되는 현상은 초기의 심리적 안정에는 도움을 주지만,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학교 내에서 모국어만 고집하는 배타적 소집단화를 유발해 한국어 습득 동기를 저하시킨다.
- 본 연구의 주관식 응답 결과에 따르면, 밀집도가 높아질수록 다문화 학생의 학습결손 보충과 복지를 위한 예산과 지원이 집중되며, 이로 인해 내국인 학생 및 학부모의 '역차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화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3. 정책 제언

▶ 선제적 언어 교육 시스템 확대 및 물리적 환경 개선⁴⁾

- 공교육 진입 전, 한국어 습득을 위한 위탁 교육 등 체계적인 언어 교육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학업적 언어능력을 확보하고, 교과 학습 증진과 수업 공백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밀집학교에 대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감축'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이를 모든 이주배경학생 소속학교로 확대 실시하여 교실 내 학생 지도가 가능한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 전담 인력 배치 및 학교 밖 거버넌스 구축

- 교사의 직무 소진을 막기 위해 '다문화 전담 행정 지원 인력' 배치와 통역 기기 및 보조 교사의 상시 배치가 최우선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지자체 및 교육지원청 중심의 '거점형 다문화교육센터'를 확대 운영하여 일선 학교의 행정 업무를 대행하는 것과, 다문화교육 담당/담임 교사를 위한 실질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4) 경상남도교육청은 지역 위탁 교육기관(3곳)을 통한 3~6개월 과정의 '다문화 예비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음. 또한,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의 급당 인원을 20명 이하로 편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실제 교육력 제고를 지원하고 있음.

- ▶ 학부모 정보 소외 해소 및 제도적 참여 보장 내실화⁵⁾
 - 가정통신문, 진학 안내(고교학점제 등), 생활지도 규정 등을 다국어로 번역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을 확충하여 언어적 정보 소외를 줄여야 한다. 또한 학부모 역량 강화 교육을 활성화하여 학교 교육의 동반자로 이끌어내는 교육적 지원이 필요하다.
- ▶ 상호문화이해 교육(intercultural education) 확대
 -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 공동체 내의 미묘한 배타성과 역차별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진정한 의미의 다문화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내국인 학생을 다문화 교육의 주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이주 배경을 결핍이 아닌 글로벌 경쟁력의 자산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상호문화이해 교육을 점차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주배경학생 및 소속학교 지원방안

<p>위탁형 예비학교 (Bridge School) 확대</p>  <p>공교육 진입 전 3~6개월 간 한국어와 학교 문화를 집중 교육하여 수업 공백을 방지합니다.</p>	<p>다문화 전담 행정 인력 배치 및 인센티브</p>  <p>행정 실무원을 배치해 교사의 업무를 경감하고, 담당 교사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p>	<p>AI 기반 양방향 모국어 소통 도입</p>  <p>가정통신문 자동 번역 앱을 보급하여 정보에서 소외된 이주배경 학부모를 교육 파트너로 참여시킵니다.</p>	<p>모두를 위한 상호문화이해교육 확대</p>  <p>내국인 학생과 학부모를 포함한 교육을 통해 역차별 인식을 해소하고 공동체 수용성을 높입니다.</p>
--	--	---	--

참고문헌

경상남도교육청(2025). 2025년 경남 다문화교육 시행 계획. 경상남도교육청 진로교육과.
 교육부(2023). 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 정책 추진 방향. 세종: 교육부.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25). 2025년 교육기본통계 결과. 세종: 교육부.
 남미자, 김보라, 배정현(2025). 이주배경학생 밀집도에 따른 단계별 학교 지원 방안. 경기도교육연구원.
 문영진 외(2025).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 지원방안연구. 인천광역시교육청 정책기획관 교육정책연구소.
 한국교육개발원(2022). 이주배경학생 유형별 교육 실태와 지원 과제. 진천: KEDI.

5) 경상남도교육청은 동·서부 권역별로 '거점형 다문화교육센터'를 지정(2교)하여 운영 중이며, 24개 언어권의 '다가치 통번역지원단'을 운영하여 학부모 상담 및 안내를 지원하고 있음. 또한, 도내 전(全) 초·중·고교 교육과정에 연간 2시간 이상 다문화 이해 교육을 필수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다문화교육 정책학교(연구학교 2교, 선도학교 41교, 한국어학급 44개)를 통해 분리가 아닌 통합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